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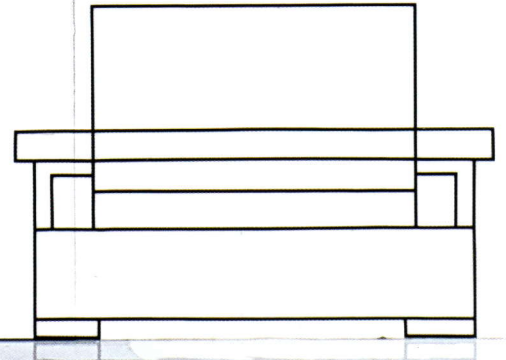
INTERIORS

04. APR 2016

1986 ▶ ISSUE NO.355

www.interiors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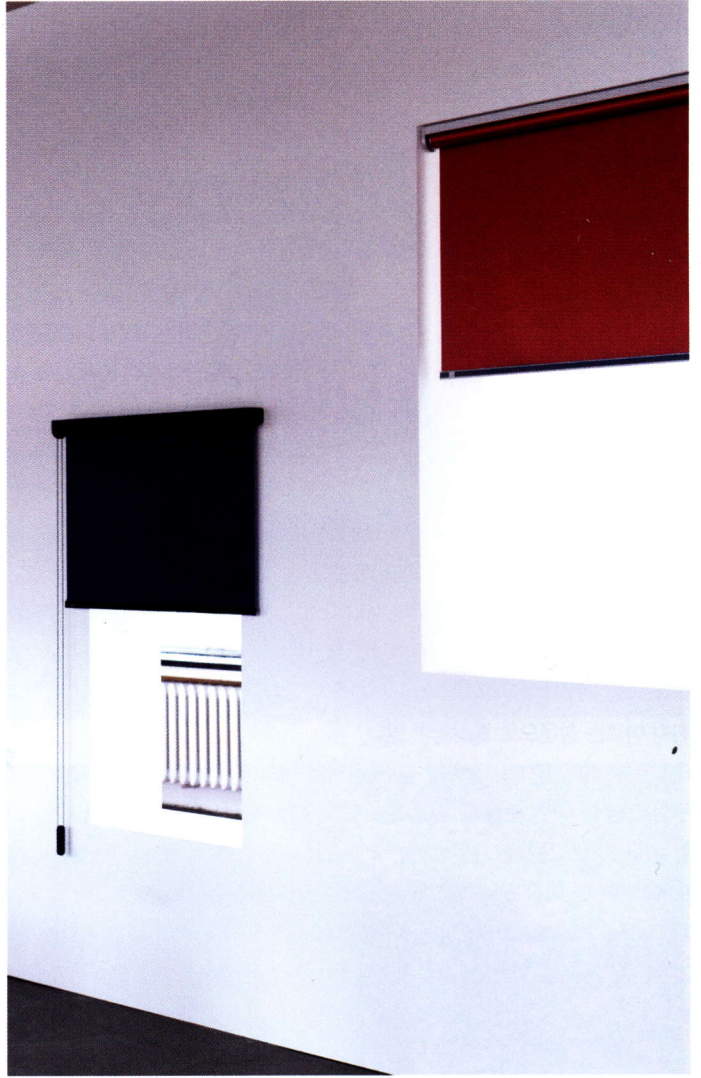
355



THEME
COLORFUL ELEMENT · COLORFUL SPACE
EXHIBITION
STOCKHOLM FURNITURE & LIGHT FAIR 2016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콘텐츠잡지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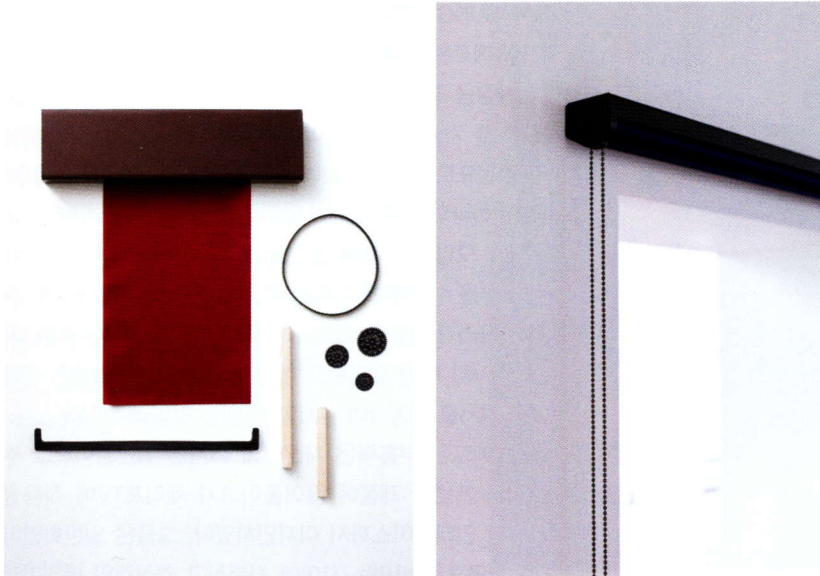
로낭&에르완 부홀렉이 제안하는 리빙 스타일

자료제공 Studio Bouroullec www.bouroullec.com

KVADRAT ROLLER BLIND

크바드라트 롤 블라인드는 실내 환경을 조절하기 위해 빛을 흡수·반사하는 제품으로서, 프레임과 텍스타일을 다양한 크기와 색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로낭&에르완 부홀렉이 디자인한 텍스타일 'Stratus', 'Nimbus', 'Cumulus' 3종을 통해 단색조의 차분한 분위기나 과감한 색상 대비로 생기 넘치는 분위기의 공간을 연출할 수 있으며, 인테리어디자인에 따라 손쉽게 텍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크바드라트가 특허 낸 독특한 설치 방법으로 천장이나 벽체, 유리창 프레임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나사나 경첩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블라인드의 케이스도 이음새 없이 디자인되어 실내공간에 부드럽게 녹아들며, 체인과 스위치 그리고 리모컨으로 제품을 조작할 수 있다.

**RONAN &
ERWAN
BOUROULLEC**
DESIGN FOR
LIVING



처음 프로젝트에 접근한 방법이 궁금하다.

롤 블라인드는 처음 시도해보는 제품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롤 블라인드에 예의와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단지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내고자 했다.

크바드라트 롤 블라인드가 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점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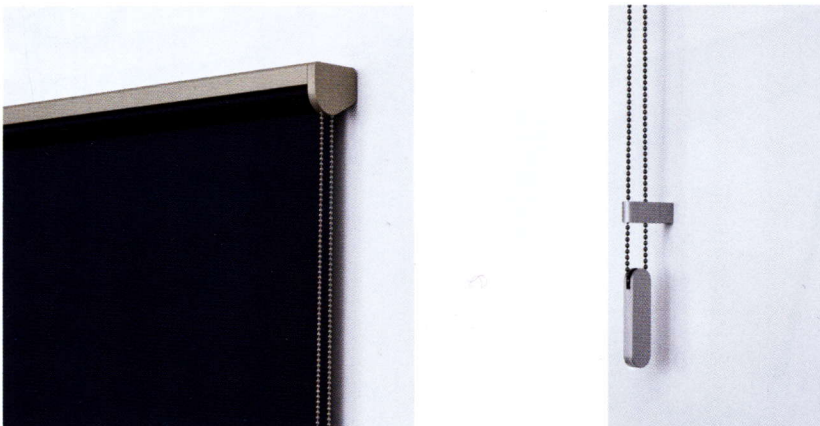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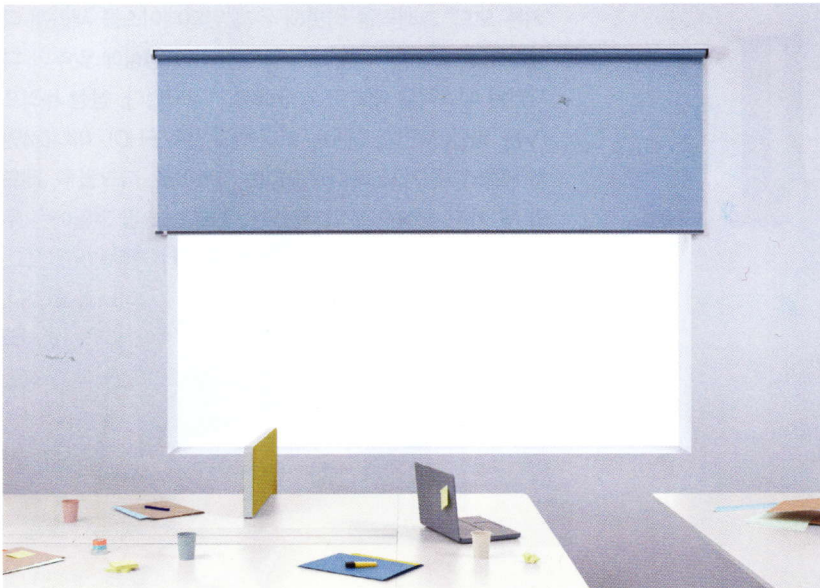
크바드라트 롤 블라인드는 스위스의 시계처럼 정교하다. 텍스타일과 블라인드 시스템이 하나로 결합하였지만, 텍스타일이 눈에 보이는 것과 달리 시스템은 하프박스에 단정히 숨겨져 있다. 이 제품의 장점으로 설치와 사용이 간단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텍스타일에 대해 평소 어떤 생각을 가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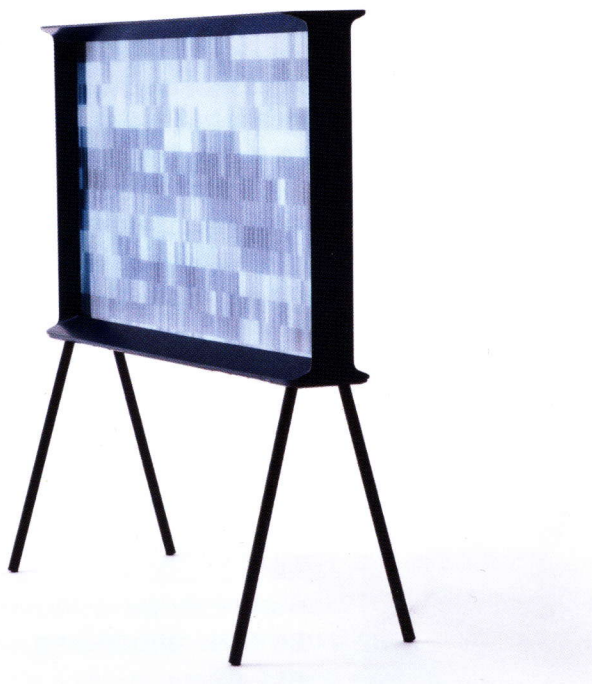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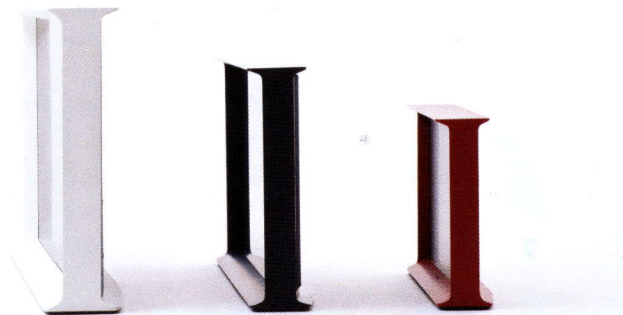
우리는 제품을 디자인하며 크바드라트 텍스타일에 관해서, 그리고 소재와 빛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했다. 텍스타일은 다양한 컬러 선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단번에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어 주기도 한다.

프레임의 색상에 대해 설명해 달라.

알루미늄의 금속성을 잘 드러내도록 양극산화를 선택했다. 그다음 이 시스템이 설치될 다양한 건물의 특성과 어울리도록 디자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순수 알루미늄의 실버 색상은 철재 건축물과 어울리고, 부드러운 샴페인 색상은 목재와 같은 따뜻한 자재와 잘 어울린다. 또한, 블랙 색상은 더 어두운 공간을 돋보이게 하는 대비감을 연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로낭&에르완 부홀렉(Ronan & Erwan Bouroullec)은 1997년 함께 작업한 이래 가구디자인, 제품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건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영향력을 키워왔다. 이들은 서로가 가진 장점을 받아들여 단순성, 독창성, 완전성을 담은 작품을 선보이고자 노력한다. 로낭&에르완 부홀렉이 최근 발표한 '크바드라트 롤 블라인드(Kvadrat Roller Blind)'와 지난 런던디자인페스티벌에서 선보인 '삼성 세리프TV(Samsung Serif TV)'를 통해 그들이 추구하는 디자인 철학을 엿볼 수 있다.



SAMSUNG SERIF TV

로남&에르완 부홀렉은 삼성 세리프TV를 디자인하며 대중이 가정용 TV를 대하는 태도를 새롭게 제안하였다. 이들은 TV를 기술의 관점이 아닌 생활에 뿌리내린 가구 디자인의 관점으로 들여다보았다. 삼성 세리프TV를 전면에서 보면 단 하나의 이음새 없이 말끔하고 옆에서 보면 알파벳 대문자 'I' 모양으로, 위에 물건을 올려두거나 지지대 없이 바닥에 놓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또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다리가 별도로 제작되어 떼었다 붙일 수도 있으며, 기존의 TV가 벽에 걸어두고 한 곳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위치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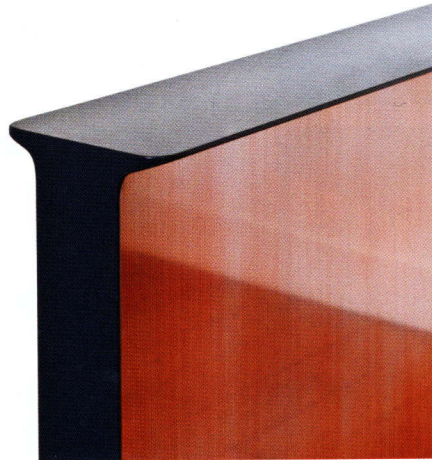
로남&에르완 부홀렉은 자신만의 디자인 접근방식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제품에 끌어들이고자 세리프TV에 적용될 사용자 인터페이스까지 디자인하였다. 그들은 일반화면이 대기화면으로 바뀌는 사이에 차분하고 추상적인 분위기의 '커튼 모드' 그래픽을 비롯해 유저 인터페이스를 새롭게 디자인했다. 뒷면은 커튼 모드의 추상적인 영상에 맞추어 디자인된 패브릭을 패널로 말끔하게 마감되었다. 삼성 세리프 TV는 일반(40인치 UHD), 미디움(32인치 FHD), 미니(24인치 HD)의 세 가지 크기와 아이보리화이트, 다크블루, 레드의 세 가지 색상으로 디자인되었다. 지난 3월 31일에는 두오모 쇼룸에서 삼성 세리프TV 한국 런칭 행사가 열렸고, 이 자리에 로남&에르완 부홀렉이 방문해 세미나를 열었다. 국내에는 미니 크기와 레드 색상을 제외한 제품이 출시되어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고, 두오모 쇼룸에서 직접 사용해볼 수 있다.

문의 두오모 (02)516-3022 www.duomokorea.com



“삼성 세리프TV 디자인을 시작하면서 디자인에 새로운 기술을 결합한 정교한 오브제를 만들고, 어떤 환경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믿음직한 존재를 탄생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우리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이러한 생각을 해 왔지만, TV 디자인은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삼성 세리프TV는 이러한 기술과는 무관한 단계에 있고, 일상에 전념한 새로운 형태와 장인정신으로 디자인되었다.”

로남&에르완 부홀렉



“삼성 세리프TV는 최신기술, 초대형이라는 일반적인 주제에서 벗어난 형태와 컬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우리의 생활에 잘 맞도록 디자인되었다. 기술이 점차 생활의 일부가 되어감에 따라, 제품 디자인은 기능성만큼이나 중요하게 되었다.”
삼성 비주얼디스플레이 디자인팀장 강윤제 전무